

음성미디어인 향가를 통해서 본 신라교육 연구*

박재영
(진주교육대학교)

<요 약>

이 연구는 신라의 대표적인 음성미디어인 향가(鄕歌)를 통해서 신라교육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음성미디어인 향가의 탄생과 유통과정을 고찰하였으며, 향가미디어가 구체적으로 신라인의 인성 형성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음성미디어로서의 향가는 신라인의 정서를 시(詩)와 송(頌)이라는 운율의 형식으로 표현된 노래미디어로서 신라의 전 계층에 의해 생산되어지고 유통되면서 향유되었다. 또한, 창작계층의 신분계층에 따라서 창작의 형식이 달랐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향가는 그 자체의 고유한 특성을 지닌 음성미디어로서 그 당시 신라인들이 그들의 실존적 고민을 극복하고 이상을 염원하고자 하는 지각 방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또한 그들의 예술적 감수성과 인성 형성에 기여한 교육미디어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주제어 : 향가, 음성미디어, 교육미디어, 인성, 신라교육

I. 서론

이 연구는 음성미디어인 향가를 통해서 신라교육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미디어는 배움의 공간에서 교사와 학습자, 학습자 상호 간에 서로 주고받는 메시지인 교육내용을 전달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교육미디어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함으로써 그 시대의 교육패러다임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미디어를 통해 교육을 읽어내는 작업을 함으로써 교사와 학습자의 특성은 물론 그들이 전달하고 전달받하고자 하는 교육의 목적을 밝혀낼 수 있다. 그런데 신라시대에는 많은 미디어들이 교육공간에서 탄생되고 유통되었으므로 이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신라교육을 고찰하는 것은 의의가 크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국에서 신라교육사를 비롯한 고대교육사를 연구함에 있어 주로 국가에 의해 이루어진 제도적, 형식적 교육을 그 주된 탐구 내용으로 한 제도사적 접근방법을 택해왔으나,

*이 논문은 박재영(2013)의 박사학위논문을 바탕으로 일부분을 재구성한 것임을 밝힘.

여기서는 새로운 연구방법인 문제사적 접근으로 ‘미디어(media)’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맥루언의 ‘매체감각론’을 연구방법의 이론적 기반으로 삼고자 한다. 맥루언은 미디어를 인간 지각의 문제로 파악하며, 각 미디어는 인간 지각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미디어를 인간 지각의 문제로 본다는 것은 외부 세계를 경험하고 또 그것을 지각의 형태로 전환해 주는 기제, 즉 인간 감각기능의 문제를 피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루언의 매체감각론은 인간 지각의 기술적 매개성에 주목함으로써 미디어의 문제를 인간 경험의 본질과 실체의 문제로 새롭게 규정했다는 의미를 갖는다.¹⁾ 이렇게 볼 때 인간 경험과 그 인식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는 교육담론의 공간에서 미디어가 차지하는 위상은 간과할 수 없다. 모든 미디어는 인간의 감각들의 확장이며, 바로 이러한 감각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과 경험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²⁾ 이러한 관점에서 미디어는 공간이고 이미지라 볼 수 있으며, 교육공간으로서의 학교와 텍스트로서의 교재를 새롭게 조명할 수 있다. 미디어는 또한 기술의 변화에 따라 변모하는 양상을 보인다. 각 시대에는 그 시대 나름대로의 미디어가 있다고 가정할 수 있으며, 그 당시 역사적·사회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고 전개된 교육미디어의 고찰을 통해서 일련의 교육활동을 밝혀내는 작업이 교육사의 탐구과정이 될 수 있다고 연구자는 보는 것이다.

다음으로 신라교육을 논의하는데 있어서 원시사회나 초기문명 시대의 주된 미디어인 음성미디어를 언급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 말은 글에 비해, 음성은 문자에 비해 분명 원초적이다. 인류의 역사를 오만 년이라면 학교의 역사는 아무리 잡아도 오천 년을 넘지 않는다. 글로써만 기준으로 하여 교육의 역사를 서술한다면 사만 오천 년의 인류 역사에서 전개되어 온 ‘교육’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 사만 오천 년의 역사는 글이 아닌 말로 전해졌다. 글이 발명된 후부터 말의 구실이 상대적으로 감소된 것일 뿐 말이 없었던 적은 없다.³⁾ 따라서 말은 글로 구성된 세계, 그 이전의 세계를 구성하고 표현한 음성미디어다. 동시에 미디어는 그 자체의 특성상 특정미디어의 출현 이후에도 이전 시기의 미디어가 완전히 자취를 감추는 단절적 속성을 보이지 않는다. 이전 시기의 미디어는 새로 출현한 미디어에 주도권을 빼앗겨 상대적으로 힘을 잃어버린 것뿐이지 결코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하기에 개별 미디어와 개별 미디어 사이에는 상호관련성을 지니며, 그것들의 전체적 조망은 산술적 총합을 넘는 새로운 의미를 창출한다. 따라서 신라교육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음성미디어와 문자미디어, 그리고 공간미디어가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작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라시대의 대표적인 음성미디어는 설화, 향가, 그리고 엽불의 세 가

1) 김근·정연교, 『맥루언을 읽는다』, 궁리, 2006, 53쪽.

2) 마셜 맥루언, 김성기·이한우 역, 『미디어의 이해』, 민음사, 2011, 55쪽.

3) 안경식, 『구비설화에 나타난 한국전통교육』, 문음사, 2004, 11-12쪽.

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즉, 세상의 지혜를 담은 이야기로서의 설화, 개인의 성정을 노래한 향가, 그리고 이상적인 삶을 염원하는 교화적 성격의 염불이 있다. 이들은 음성미디어로서 그들 각각의 미디어적 특성을 통해 신라인들의 삶에 교육적 영향을 끼쳤다. 따라서 이러한 음성미디어는 신라인들에게 교육미디어로서 작동되어 그들의 인성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노래와 같은 리듬은 원시 교육에 매우 유용한 방법이었음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신라인에게도 매우 중요한 교육미디어로 활용되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신라의 화랑도 교육 가운데 ‘상열가악(相悅歌樂)’이라는 정서 도야가 있었고, 이는 화랑들의 정서교육의 핵심적 부분이었다. 그런데 여기서의 가악은 단지 먹고 마시며 즐기는 가악이 아니라, 종교 의식에 필요한 음악이거나 향가와 같은 노래로 생각할 수 있다. 이처럼 다른 음성미디어와 마찬가지로 노래의 형태를 띤 향가도 신라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다시 말해 향가미디어의 출현은 그 당시 신라인들에게 다양한 정서적·심미적 영향을 미치면서 그들의 심성 형성에 기여한 교육미디어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라의 음성미디어인 향가의 탄생과 유통과정을 고찰하며, 향가미디어가 구체적으로 신라인의 인성 형성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향가미디어의 탄생

이 장에서는 노래미디어인 향가의 탄생 과정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향가의 탄생 과정에 대한 탐구는 주로 향가의 유래와 관련한 향가의 개념, 향가미디어의 창작 및 향유 계층, 그리고 향가미디어의 탄생 동기 및 내용 등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 음성미디어인 향가가 언제부터, 누구에 의해, 왜, 어떻게 불리어져 왔는가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러면 신라에서 음성미디어인 노래가 언제부터 활용되었는가에 대해 전해지는 기록을 토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신라 가악의 유래를 살펴보면, 신라 유리왕 5년(28)에 왕이 지은 <도솔가(兜率歌)>가 가악의 시초라고 하였다.⁴⁾ 물론 <도솔가> 이전에 전혀 노래가 없었을 리는 없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가악은 ‘가’로 이루어진 ‘예악(禮樂)’이다. ‘예악’은 백성을 교화해 국가의 통치에 감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제정한 공연예술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예악’의 정신을 구현하고 그 일부로 부른 노래가 <도솔가>였다.⁵⁾ 이처럼 신라 초기의 노래미디어는 국가적 의도, 즉 백성들을 교화시키기 위한 미디어로서 주로 활용되

4) 김부식, 『삼국사기』, 이재호 역, 『삼국사기』, 숲, 1997. 이하에서는 책, 권, 편, 조 이름을 표기했다. 『三國史記』, 卷1, 新羅本紀1, 『儒理尼師今』.

5)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1(제4판)』, 지식산업사, 2005, 144쪽.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노래가 주로 교화적 음성미디어의 기능의 일부를 담당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여기에 덧붙여 『삼국유사』에 <도솔가>와 관련하여 언급된 기록을 토대로 이 당시 노래미디어의 또 다른 성격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비로소 <도솔가(兜率歌)>를 지었는데 차사(嗟辭)⁶⁾와 사뇌격(詞腦格)⁷⁾이 있었다.⁸⁾

이처럼 <도솔가>는 그 형식상에 있어 차사(嗟辭)를 지니며, 사뇌가(詞腦歌)의 격식을 보였다. 이를 통해 <도솔가>가 서사적 갈래에서 서정적 갈래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형식을 보여주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도솔가>는 이후의 많은 노래미디어들이 서정적 갈래로 넘어가는 교량적 구실을 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신라 초기의 노래미디어는 백성을 교화하기 위한 예악의 형태에서 점차로 개인의性情(性情)을 포함하여 서정을 노래하는 형태로 폭 넓게 발전하였다. 그런데 6세기 말부터 나타난 향가는 그러한 예악 질서를 바로 잡으려는 국가적 차원의 노래미디어가 아니고, 개인이 창작한 노래미디어이다. 신라교육에서 향가를 주목하는 이유는 향가가 신라의 노래미디어라는 점이며, 신라인들의 인성 형성에 끼친 영향이 적지 않았으리라는 점 때문이다. 여기서 향가의 유래와 관련지어 향가의 개념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기록을 살펴보자. 『삼국유사』를 편찬한 일연은 “신라 사람들이 향가를 숭상함은 오래되었는데 대개 시(詩)와 송(頌)과 같은 것이었다. 그러므로 늘 천지와 귀신을 감동시킨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하였다.⁹⁾ 여기서 신라 사람들이 향가를 숭상하였다는 것은 신라인의 노래미디어로서 오랜 역사를 거쳐 오면서 당시 사람들의 정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는 것이다. 또 시와 송과 같은 것이라 하는 것은 그 형식이 운율을 가진 것이라는 것이며, 천지와 귀신을 감동시킨 것이 한 둘이 아니라는 것은 수준 높은 노래가 많았다는 것이다. 이처럼 향가는 신라인의 정서를 시와 송이라는 운율의 형식으로 표현된 노래미디어이다. 그렇다면 현전하는 최초의 향가는 누가, 언제 만들었는가. 이는 신라 진평왕(579-632 재위)대에 용천사(融天師)¹⁰⁾가 지은 <혜성가(彗星歌)>인데,

6) ‘슬퍼하는 말’의 뜻이니, 곧 사뇌가(詞腦歌)에 나타나는 ‘아야(阿耶)’, ‘아야(阿也)’, ‘아야아(阿耶也)’가 이에 해당된다. 조선시대의 가사에 나타나는 감탄사 ‘아으’와 같다. 일연, 『삼국유사』, 이재호 역, 『삼국유사 1』, 솔, 2006, 119-120쪽 참조.

7) 사뇌의 격식이니, 곧 사뇌가의 격식을 갖추었다는 뜻. 사뇌가의 끝 장은 반드시 차사로 시작됨이 그 특이한 격식이다. 일연, 『삼국유사』, 이재호 역, 앞의 책, 120쪽 참조.

8) 『三國遺事』, 卷1, 紀異2, 『第三弩禮王』, 始作兜率歌 有嗟辭 詞腦格. 이하의 『삼국유사』 자료는 솔 출판사에서 2006년 간행한 번역본을 참고로 했다. 이하에서는 책, 권, 편, 조 이름을 표기했다.

9) 『三國遺事』, 卷5, 感通7, 『月明師兜率歌』, 羅人尙鄉歌者尙矣 蓋詩頌之類歟 故 往往能感動天地鬼神者非一.

10) 용천사의 직분은 낭도(郎徒)이면서 승려(僧侶)인 낭승(郎僧)이며, 그 이름이 용천인 것처럼 낭승이면서도 천심을 품고 천기나 천체의 운행에 조절하고 융화할 뿐 아니라 천지에 호응하여

그 노래는 다음과 같다.

옛날, 동해가의
 건달바(乾達婆)가 눈 성을 바라보고
 왜군도 왔다고
 봉화를 든 변방이 있다
 세 화랑이 산구경 오심을 듣고
 달도 부지런히 켜려 하는데
 길 쓸 별을 바라보고
 혜성이여! 하고 사ړ인 사람이 있구나
 아아 달도 더 아래로 떠가고 있다
 이바 무슨 혜성이 있을꼬¹¹⁾

이 노래에서처럼 향가는 독특하게 그 노래 자체에 배경설화인 유래담이라는 이야기를 지니고 있다. <혜성가>의 배경설화는 다음과 같다.

화랑의 무리 세 사람이 금강산에 놀러 가려는데 혜성이 심대성(心大星)을 범했다. 그래서 낭도들은 이를 의아하게 여겨 그 여행을 중지하려 했다. 그때 용천사(融天師)가 노래를 지어서 그것을 불렀더니 별의 궤변은 즉시 없어지고 일본 군사가 제나라로 돌아감으로써 도리어 경사가 되었다. 임금은 기뻐하여 낭도들을 보내어 금강산에서 놀게 했다.¹²⁾

이 배경설화처럼 <혜성가>는 별의 궤변을 없애고 일본 군사가 물러나도록 하는 주밀(呪密)적 성격의 이야기가 노래로 표현된 것이다. 이처럼 현전하는 신라 최초의 향가인 <혜성가>의 탄생이 진평왕 대에 이루어졌음을 고려하면, 음성미디어로서의 향가미디어는 신라사회에서 6세기 후반부터 주로 탄생되고 유통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향가미디어는 주로 누구에 의해 만들어지며, 불리어졌나? 향가미디어의 유통과도 관련되는 미디어생산자인 창작계층과 아울러 미디어사용자인 향유계층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향가미디어 생산자인 창작계층에 대해 살펴보면, 국문학자 김승찬은 향가 작가

천하를 감동시키고 교화시킬 수 있는 탁월한 능력(신라적 주밀신앙의 신주력)을 지닌 인물이다. 김승찬, 『신라향가론』, 부산대학교 출판부, 1999, 92쪽 참조.

- 11) 『三國遺事』, 卷5, 感通7, 『融天師彗星歌』, 舊理東戶汀叱 乾達婆矣 遊烏隱城叱盼良望良古 倭理叱軍置來叱多 烽燒邪隱邊也戴耶 三花矣岳音見賜烏尸聞古 月置八切爾數於將來尸波衣 道尸掃尸星利望良古 彗星也白反也人是有叱多 後句 達阿羅浮去伊叱等邪 此也友物北所音叱彗叱只有叱故.
- 12) 『三國遺事』, 卷5, 感通7, 『融天師彗星歌』, 三花之徒 欲遊楓岳 有彗星犯心大星 郎徒疑之 欲罷其行 時天師作歌歌之 星怪即滅 日本兵還國 反成福慶 大王歡喜 遣郎遊岳焉.

를 신분계층별로 분류하면서 모든 계층에서 향가미디어를 창작했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계층에 따라서는 향가 창작의 형식이 달랐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¹³⁾ 즉, 후구가 붙는 노래체[삼구육명체(三句六名體), 사뇌가체] 향가를 창작한 작가가 원성왕, 용천사, 월명사, 충담사, 영재, 균여, 신충 등의 인물임을 보아 향가 가운데 후구가 붙는 노래체 향가는 주로 상층의 문화인계층에서 창작하였고, 3·4분절체(소위 4구체) 향가와 8·9분절체(소위 8구체) 향가를 창작한 작가가 득오곡, 처용랑, 서동, 실명노옹 등의 인물임을 보아 3·4분절체 향가와 8·9분절체 향가는 주로 하위귀족계층과 서민계층에서 창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삼국유사』에 실린 경덕왕과 충담사(忠談師)의 대화 기록을 통해서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생략) 중은 이에 차를 다려서 왕에게 드렸는데 차의 맛이 이상하고 그 사발 안에서 이상한 향기가 풍겼다. 왕은 말했다. “내 들으니 스님이 기파랑(耆婆郎)을 찬미한 사뇌가(詞腦歌)가 그 뜻이 매우 높다 하니 과연 그러하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위하여 백성을 다스려 편안히 할 노래를 지어 주오.” 중은 즉시 칙명(勅命)을 받들어 노래를 지어 바쳤다. 왕은 그를 아름답다이 여겨 왕사(王師)로 봉하니 충담사는 두 번 절하고 굳이 사양하며 받지 않았다.¹⁴⁾

이 기록은 이 당시 상층계층에 속한 인물인 충담사(忠談師)에 의해 탄생된 <찬기파랑가(讚耆婆郎歌)>와 <안민가(安民歌)>의 배경설화이다. 그러면 10구체 사뇌가인 <찬기파랑가>의 노래를 살펴보자.

열치고
 나타난 달이
 흰구름을 좇아 떠가는 것이 아닌가
 새파란 시내에
 파랑의 모습이 있도다
 일오천(逸鳥川) 조약돌에서
 낭이 지니신
 마음을 좇으려 하노라

13) 왕실계층은 눌지왕, 신문왕, 원성왕, 흥덕왕이며, 승려계층은 담수, 용천사, 원효, 월명사, 충담사, 영재, 균여이며, 화랑도계층은 원랑도, 사다함, 득오곡, 요원랑 외이며, 귀족계층은 신충, 신회이며, 서민계층은 물계자, 천관녀, 실혜, 서동, 실명노옹, 희명, 처용랑으로 신분 계층별로 묶었다. 김승찬, 앞의 책, 13쪽 참조.

14) 『三國遺事』, 卷2, 紀異2, 『景德王 忠談師 表訓大德』, 僧乃煎茶獻之 茶之氣味異常 甌中異香郁烈 王曰 朕嘗聞師讚耆婆郎詞腦歌 其意甚高 是其果乎 對曰 然 王曰 然則爲朕作理安民歌 僧應時奉勅歌呈之 王佳之 封王師焉 僧再拜固辭不受.

아아! 잣나무 가지 드높아
서리 모를 화랑의 장(長)이여¹⁵⁾

이 노래는 낭승(郎僧)인 충담사가 기파랑의 고결한 인품과 숭고함을 찬양하여 지어 부른 향가이다. 또한 월명사(月明師)의 <제망매가>와 더불어 향가미디어 중에서 문학성이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꼽히며, 화랑을 기린 노래라는 점에서 득오(得鳥)가 지은 <모죽지랑가>와 쌍벽을 이루고 있다.¹⁶⁾ 교육미디어의 측면에서 보면 충담사는 ‘잣나무’에 비유되는 기파랑의 구도사적인 인품을 이상적 교육상으로 설정하며, 노래미디어인 향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그 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그러면 충담사의 또 다른 향가인 <안민가>를 살펴보자.

임금은 아버지요
신하는 사랑하실 어머니요
백성은 어리석은 아이라! 하실지면
백성이 그 사랑을 알리이다
꾸물거리며 사는 물생(物生)에게
이를 먹여 다스린다
이 땅을 버리고 어디 가려! 할지면
나라 안이 유지됨을 알리이다
아아!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할지면
나라 안이 태평하리이다¹⁷⁾

위의 배경설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노래는 경덕왕이 백성을 다스리는데 도움이 되는 노래를 요구하여 충담사에 의해 지어졌다. 여기서는 그 당시 전제주의를 중심으로 한 어지러운 정치적 현실에서 유교사상을 통해 태평성대를 구하고자 하는 충담사의 충언을 담고 있다. 결국 안민가의 내용은 현실을 잘못 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도적인 반어를 통해서 나라의 성원 모두를 교화하고 깨닫게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불린 노래이다.¹⁸⁾ 이상에서 이

15) 『三國遺事』, 卷2, 紀異2, 『景德王 忠談師 表訓大德』, 咽鳴爾處米 露曉邪隱月羅理 白雲音逐干浮 去隱安支下 沙是八陵隱汀理也中 耆郎矣 兒史是史籤邪 逸鳥川理叱磧惡希 郎也持以支如賜鳥隱 心未際叱盼逐內良齊 阿耶 栢史叱枝次高支好 雪是毛冬乃乎尸花判也.

16) 박노준, 『향가』, 열화당, 1991, 60쪽.

17) 『三國遺事』, 卷2, 紀異2, 『景德王 忠談師 表訓大德』, 君隱父也 臣隱愛賜尸母史也 民焉狂尸恨阿 孩古爲賜尸知 民是愛尸知古如 窟理叱大盼生以支所音物生 此盼喰惡支治良羅 此地盼捨遣只於冬 是去於丁爲尸知 國惡支持以支知古如後句 君如臣多支民隱如爲內尸等焉 國惡大平恨音叱如.

18) 나경수, 『향가의 해부』, 민속원, 2004, 313쪽.

당시 낭승인 충담사에 의해 탄생된 <찬기과랑가>와 <안민가>의 10구체의 형식적 특성을 보인 향가를 살펴보았다. 여기서 앞서 보았듯이 후구가 붙는 노래체 향가인 10구체 사뇌가의 형식뿐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사뇌가’라는 말을 붙인 것은 뜻이 높다는 것을 보여 주는데, 이는 사뇌가가 향가 가운데 상위의 것이라는 특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처럼 사뇌가(詞腦歌)라고 한 것도 그 수준이 높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조동일은 사뇌가에 대해 화랑의 사상을 정신적인 내용으로 하고 거기에 불교를 보태, 화랑의 무리가 속한 주술사이자 승려인 정신적 지도자가 시인 노릇을 하며 주로 창작했다고 보았다.¹⁹⁾ 월명사, 충담사와 같은 ‘사(師)’라고 한 승려들이 화랑도의 지도자가 되어 화랑사상과 불교라는 신라 정신의 두 가지 지주를 아울러 대변하면서, 집단의 결속과 개인의 표현을 함께 감당하는 사뇌가를 이룩해 그 갈래가 한 시대의 문학을 이끌게 했다고 하였다. 또 사뇌가는 사회적이며 정신적인 분열을 조화롭게 응결시키는 데서 사상의 긴장과 함께 사상의 지표를 찾았다 할 수 있다고도 하였다.²⁰⁾ 향가미디어가 사뇌가의 형식을 띠면서 상층계층에 의해 창작된 경우와는 달리 다른 계층에 의해 창작된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자. 다음은 『삼국유사』에 실린 <원왕생가(願往生歌)>이다.

달님이시여 이제 서방까지 가서서
 무량수불전에 일러다가 사뢰소서
 다짐 깊으신 세존(世尊)께 우러러 두 손 모아
 원왕생(願往生), 원왕생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사뢰소서
 아으, 이 몸 남겨두고 사십팔대원(大願)이루실까 저어합니다²¹⁾

이 기록은 문무왕(661-681 재위) 때의 사문 광덕(廣德)과 엄장(嚴莊)에 관련된 노래이다. 광덕의 처는 분황사의 종 신분이었으며, 광덕이 먼저 죽자 광덕에 대한 노래로 불리어 전승되고 있다. <원왕생가>의 창작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아마 서방극락정토에 왕생하기를 바라는 그 당시 하층계층들에 의해 주로 불리었던 전승 향가이다. 여기서 광덕의 처가 그 당시 신라의 최하위계층인 종의 신분인 점을 감안하면, 향가 미디어의 창작계층 및 그 대상이 일부 계층에 독점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이처럼 <원왕생가>는 7세기 통일전쟁이라는 혼란기에 겪는 민중들의 실존적 고민과 현세적 고난을 아미타신앙에 의존하여 극락세계로 인도되고자 하는 치유와 염원을 담은 노래이다. 따라서 하

19)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1(제2판)』, 지식산업사, 1992, 136쪽.

20) 조동일, 위의 책, 1992, 137쪽.

21) 『三國遺事』, 卷5, 感通7, 『廣德 嚴莊』, 月下伊底亦 西方念丁去賜里遣 無量壽佛前乃 惱叱古音 (鄉言云報言也) 多可支白遣賜立 誓音深史隱尊衣希仰支 兩手集刀花乎白良 願往生願往生 慕人有如白遣賜立 阿邪 此身遣也置遣 四十八大願成遣賜去.

층 민중들은 간절한 염원을 담아 ‘원왕생, 원왕생’하며 그들의 힘든 현실을 극복하고자 노래 불렀을 것이다. 그러면 향가미디어 창작의 또 다른 사례를 구체적인 기록을 통해 살펴보자. 먼저 낭도 득오가 화랑 죽지랑을 흠모해 지은 <모죽지랑가>를 살펴보면, 화랑의 교육이 단지 화랑과 낭도의 지배와 복종의 엄격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따뜻한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노래는 다음과 같다.

지나간 봄을 그리워하매
모든 것이 설어 시름하는데
아름다움을 나타내신 얼굴,
주름살 지니려 하옵내다
눈 돌릴 사이에나마
이승에서 만나 뵈옵도록 기회를 지으리이다
낭(郎)이여 낭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다니는 길
다북쪽 우거진 마을에 잘 밤 있으리이까²²⁾

이 노래 <모죽지랑가>는 효소왕대에 지어진 것으로 그 당시의 이야기를 주제로 하고 있다. 죽지랑이 화랑일 때 득오는 그 아래에서 낭도로 있었던 사람이다. 세월이 흐른 후, 간 봄을 그리워하듯이 득오는 죽지가 그리워 운다고 하였고, 낭의 모습을 좇아 저승에라도 가고 싶은 마음을 노래로 담아내었다. 득오는 자기 고장 모랑리를 다스리는 익선(益善)에게 매여 창고지기를 하고 토지 경작도 하며 살았던 사람이었다. 이런 신분의 득오가 이러한 노래를 지었다는 것은 낭도와 화랑의 관계가 인간적이었다는 것도 말해주지만, 그가 낭도로서 가악과 관련된 교육을 받았다는 것도 짐작하게 한다.²³⁾ 달리 이야기하면, 이런 가악 교육, 정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적이 되었을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요컨대 향가 미디어는 사뇌가와 같이 정신적 지도자들이 지은 것도 있고, 일반 화랑들이나 낭도들이 지은 것들도 있지만 그것이 천지와 귀신을 감동시킬 정도로 그 시대의 인심(人心)과 정서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신라교육사에서 중요한 사실이며, 이는 단지 가사의 우수성 뿐 아니라 노래라는 음성미디어의 특성에 기인하였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22) 『三國遺事』, 卷2, 紀異2, 『孝昭王代 竹旨郎』, 去隱春皆埋米 毛冬居叱沙 哭屋尸以憂音 阿冬音乃叱好支賜烏隱 兒史年數就音墮支行齊 目煙廻於尸七史伊衣 逢烏支惡知作乎下是 郎也慕理尸心未行乎尸道尸 蓬次叱巷中 宿尸夜音有叱下是.

23) 안경식, 『화랑도 교육사상과 철학』, 『신라학연구』 제8권, 신라학연구소, 2004, 8-9쪽.

Ⅲ. 향가미디어의 유통

이 장에서는 음성미디어인 향가의 향유계층을 포함한 향가미디어의 유통과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그 당시 향가를 향유한 계층을 통시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향가가 어느 시기, 누구에 의해 유통되어졌는가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현존하는 향가의 현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존 향가는 모두 28수이다. 그 가운데 고려 초·중엽에의 <보현십원가> 11수와 <도이장가>, 문헌적 검증이 필요한 필사본 『화랑세기』 소재 2수를 제외하면,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신라시대의 작품은 14수에 불과하다.²⁴⁾ 그런데 현존하는 향가의 유통 시기는 그 창작 시기를 시발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존 향가의 창작 시기를 살피는 작업은 의미 있다. 그러면 현존하는 향가의 창작 시기를 분석한 서철원의 다음 연구를 참조하고자 한다.²⁵⁾ 신라의 향가는 진평왕대·선덕왕대에 잇달아 3수, 문무왕대 1수, 효소왕대 1수, 성덕대왕대 2수, 경덕왕대 5수, 원성왕대와 헌강왕대 각 1수씩 모두 14수가 남아 있다. 요컨대 7세기에 5수, 8세기 초·중엽 7수가 집중되어 있는데, 하대의 2수를 제외하면 대략 2세기에 걸쳐 현존하는 작품 가운데 12수가 형성된 것이다. 그것도 성덕왕·경덕왕대의 60년 사이에 7수가 집중되었다. 이처럼 현존하는 향가의 대부분이 7세기 이후에 집중적으로 창작된 점을 고려할 때 이 시기 신라교육에서 새로운 음성미디어가 출현했던 시기임을 알 수 있다. 앞서 맥루언이 언급했던 것처럼 전쟁이라는 새로운 환경은 인간의 지각방식에 중요한 변화를 초래했는데, 그러한 변화의 모색은 신라인들에게 있어 그들의 정서 함양을 위한 노래미디어인 향가를 탄생시키는 창의적인 면모로 이어졌다. 이 시기 향가미디어의 향유계층에 대한 탐구는 향가의 유통 과정과 관련이 있는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신라에서 향가미디어는 모든 계층에서 창작되었다. 이처럼 모든 계층에서 창작된 향가는 유통되면서 모든 계층에서 향유되었다는 사실을 다음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양지스님은 신기하고 이상하여 남이 헤아릴 수 없음이 모두 이와 같았다. 한편으론 여러 가지 기예에까지 통달하여 신묘함이 비길 데가 없었다. (중략) 그가 영묘사의 장륙상(丈六像)을 만들 때 입정(入定)하여 삼매(三昧)에서 빈 부처를 모형으로 삼았는데 온 성안의 남자와 여자들이 다투어 운반했었다. 그때 남녀들이 읊은 풍요(風謠)는 이렇다.

오다 오다 오다
오다 인생은 서럽더라

24) 서철원, 『향가의 역사와 문화사』, 지식과 교양, 2010, 11쪽.

25) 서철원, 위의 책, 12쪽.

서럽다 우리들이여(은)
공덕 님으로 온다

지금도 시골 사람들이 방아를 짚을 때나 일할 때에 모두 이 노래를 부르니 대개 이때 시작되었던 것이다.²⁶⁾

이 배경설화에서 언급된 것처럼 <풍요(風謠)>는 신이(神異)한 승려인 양지가 영묘사(靈妙寺)의 장륙상(丈六像)을 소조(塑造)할 때 온 성안의 남녀가 진흙을 다투어 운반하며 부른 민요 형태의 노래이다. 이를 통해서 그 당시 향가미디어가 진 계층에 의해 불리어졌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풍요>는 노동요의 특성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하는 바는 이를 통해서 음성미디어의 한 갈래인 민요미디어가 어떤 유통과정을 거쳐 사람들에게 의해 향유되면서 변화되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풍요>가 사찰 주변에 떠돌아다니던 초기의 <풍요>는 ‘노동’과는 무관한 민요였을 것이다. “서럽다 우리들이여”나 “공덕 님으로 온다”니 하는 진술은 순전히 불교의 무상관념(無常觀念)과 공덕관념(功德觀念)만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아서 그렇다. 그러다가 선덕여왕(632-647 재위) 무렵에 이르러 가사에 담긴 내용과는 상관없이 사찰의 노동요로 그 가창 용도가 변이되었고, 이어서 일연이 『삼국유사』를 편찬할 고려말엽에는 노동요로 용도가 다시 바뀌어져서 경주 지방 사람들이 방아를 짚을 때나 역사(役事)를 할 때 부르는 탈사찰적(脫寺刹的)인 노래로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²⁷⁾ 이처럼 음성미디어로서의 민요 형태를 띤 <풍요>가 꾸준한 유통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른 갈래의 향가로 변화되는 모습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7세기 이후에 집중적으로 창작된 향가 미디어가 어떠한 유통과정을 거치면서 신라인들에게 향유되었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8세기 신라의 향가미디어 유통에 관련된 기록을 살펴보자.

경덕왕 19년 경자(760년) 4월 2일에 두 해가 나란히 나타나서 열흘 동안 사라지지 않았다. “인연 있는 중을 청해서 꽃 뿌리는 공덕을 지으면 재앙을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중략) 왕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러서 단을 열고 기도문을 짓게 했다. 월명사는 왕께 아뢰었다. “빈도(貧道)는 그저 국선의 무리에 속해 있으므로 향가만 알 뿐이오며 범성(梵聲)에는 익숙지 못합니다.” 왕은 말했다. “이미 인연 있는 중으로 뽑혔으니 향가라 하더라도 좋소.” 월명은 이에 『도솔가(兜率歌)』를 지어 사실을 진술했는데, 그 가사는 이렇다.

26) 『三國遺事』, 卷4, 義解5, 『良志使錫』, 其神異莫測皆類此 旁通雜譽(藝)神妙絕比 又善筆札 靈廟丈六三尊天王像 并殿塔之瓦 天王寺塔下八部神將 法林寺主佛三尊 左右金剛神等 皆所塑也 書靈廟法林二寺額 又嘗彫磚造一小塔 并造三千佛 安其塔置於寺中 致敬焉 其塑靈妙之丈六也 自入定以正受所對爲揉式 故傾城士女 爭運泥土 風謠云 來如來如來如 來如哀反多羅 哀反多矣徒良 功德修叱如來來如 至今土人春相役作皆用之 蓋始于此.

27) 박노준, 앞의 책, 21-22쪽.

오늘 이에 산화가(散花歌)를 불러
뿌린 꽃아 너는
곧은 마음의 명령을 부림이니
미륵좌주(彌勒座主)를 모셔라

(중략) 조금 후에 괴변이 즉시 사라졌다.²⁸⁾

이는 『삼국유사』에 기록된 월명사가 지은 <도솔가>의 배경설화이다. 일연에 의하면 『삼국유사』를 편찬할 당시 세간에서는 이 노래를 <산화가>라 하였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며 <도솔가>라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서 보면 8세기에 창작된 향가가 지속적으로 유통되면서 13세기 후반 고려인들에 의해 잘못된 이름으로 불리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도솔가>의 배경설화에 드러난 유래담을 토대로 그 당시 음성미디어의 유통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신라 경덕왕(742-765 재위) 때 두 해가 나타나서 사라지지 않자 왕이 월명사를 불러 노래를 짓게 하자 월명사 자신은 국선지도(國仙之徒)에 속해 있으므로 다만 향가(鄕歌)만 알 뿐이며, 범성(梵聲)에는 익숙지 못하다고 하였다. 이 대목에서 그 당시 또 다른 음성미디어로서의 한 갈래인 ‘범성’이 신라사회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주목하고자 한다. 범성은 부처 보살의 음성이나 경 읽은 소리로서 범패(梵唄)이거나 찬불가(讚佛歌)이다. 월명사가 범성에는 익숙지 못하다는 대목에서 그 당시 신라사회에서 범성에 익숙한 개인이나 집단이 존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구체적인 연원은 잘 알 수 없지만, 이 시기 신라사회에서 범성인 범패가 음성미디어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음성미디어인 범패에 관한 간단한 이해와 함께 월명사의 <도솔가>이후 신라사회에서 범패를 미디어로 활용하고 유통시킨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자. 범패는 불교에서 재(齋)의식에 사용되는 모든 음악을 말한다. 특히 가곡, 판소리와 함께 우리나라 3대 성악곡의 하나로 장단(長短)과 화성(和聲)이 없는 단성시율(單聲施律)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며, 신라 때 당에 유학 간 진감선사(眞鑑禪師)에 의해 전해졌다는 기록이 있다. 불교에서 재는 상주권공재(常住勸供齋), 시왕각배재(十王各拜齋), 생전예수재(生前預修齋), 수륙재(水陸齋), 영산재(靈山齋)로 나뉘며, 소리는 안채비소리, 훗소리, 짓소리, 화청(和淸)의 4가지로 나뉠 수 있다. 안채비소리는 절 안의 범주승이 축원을 위해 부르는 노래로 염불과 비

28) 『三國遺事』, 卷5, 感通7, 『月明師兜率歌』, 景德王十九年庚子四月朔 二日竝現 挾[挾] 句不滅 日官奏 請緣僧 作散花功德則可禳 (中略) 王使召之 命開壇作啓 明奏云 臣僧但屬於國仙之徒 只解鄕歌 不閑聲梵 [梵聲] 王曰 既卜緣僧 雖用鄕歌可 明乃作兜率歌賦之 其詞曰 今日此矣散花 唱良 巴寶白乎隱花良汝隱 直等隱心音矣命叱使以惡只 彌勒座主陪立羅良 (中略) 既而日怪即滅.

숫하다. 또한 바깥채비는 초청을 받아 전문 범패승이 부르는 노래라고 하여 바깥채비라고도 하는데, 훗소리와 깃소리가 이에 속한다. 화청은 듣는 이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꾸민 사설형태의 축원문이다.²⁹⁾ 그러면 신라시대 음성미디어인 범패를 활용하며 유통시킨 진감선사(眞鑑禪師, 774-850)의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자.

평소 범패(梵唄)를 잘 하였는데, 그 목소리가 금옥 같았다. 구슬픈 듯한 곡조에 나를 것 같은 소리는 상쾌하면서도 곡진하여, 능히 천상계(天上界)의 모든 신불(神佛)로 하여금 크게 환희(歡喜)케 하였다. 길이 먼 곳까지 흘러 진함에, 배우려는 사람이 승당(僧堂)을 가득 메웠는데, 가르치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 魚山(梵唄)의 묘한 곡조를 익히는 자가 코를 막고 가곡(歌曲)을 배우듯 다투어 옥천(玉泉-진감선사)의 여향(餘響)을 본받으려 하니, 어찌 성문(聲聞)으로써 중생을 제도하는 교화가 아니겠는가.³⁰⁾

여기서 진감선사는 찬불가인 범패를 매우 잘 불러서 천상계의 모든 신불(神佛)로 하여금 크게 환희케 할 정도로 음성미디어인 범패를 잘 구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일연이 『삼국유사』 『월명사도술가』 기사 끝에서 향가가 “천지와 귀신을 감동시킨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기록했던 대목과 유사하다. 이처럼 범패와 향가가 그 노래를 듣는 신불, 천지 그리고 귀신을 감동시킬 정도였다면, 그 당시 신라인들의 정서와 심미적 인성 형성에 끼친 영향을 엄청났으리라 짐작된다. 이는 그 당시 음성미디어인 향가와 범패를 활용한 신라인의 문화예술 수준이 매우 높았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진감선사에게 범패를 배우러 온 사람들이 승당(僧堂)을 가득 메웠다는 사실을 통해 진감선사의 범패미디어 구사능력의 뛰어남과 아울러 그 당시 신라인들의 음성미디어 활용에 대한 열의, 그리고 교화미디어로 범패를 활용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는 그 당시 신라인들이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관심이 지극했다는 점과 함께 그들의 문화 수준이 고대사회의 편협성을 극복하며 주체적인 문화인의 삶을 지향했음을 알 수 있는 한 단면을 보여준다. 또한 범패가 향가와 함께 신라인의 정서함양을 위한 음성미디어이자 교화미디어의 기능을 하면서 신라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유통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개인의性情(性情)을 표현하면서 예술적 감수성을 드높인 향가의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생사의 길은
여기 있으며 두려워지고
나는 간다 말도

29) <http://www.koreamusic.org/InfoText/TextDetailView.aspx?MenuCode=102011100>, 한국전통소리 문화 홈페이지.

30) 최치원, 최영성 역주, 『崔致遠全集 1: 四山碑銘』, 아세아문화사, 1998, 187-188쪽.

못다 이르고 갔느냐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지는 잎처럼
한 가지에 나서
가는 곳을 모르는구나
아 미타찰(彌陀刹)에서 너를 만나볼 나는
도를 닦아 기다리련다³¹⁾

이 노래는 월명사가 일찍 죽은 누이동생을 위해서 재를 올릴 때 지은 <제망매가>이다. 월명사가 이 향가를 지어 제사지냈더니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 종이돈이 서쪽으로 날려 없어져 버렸다. 이처럼 죽은 누이동생의 극락왕생을 서원하면서 부른 월명사의 애절한 노래는 인간의 감동을 넘어 서방극락 정도에까지 미쳤을 정도로 뛰어났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월명사가 음성미디어의 구체적인 음악도구인 악기의 연주 실력도 매우 뛰어났음을 다음 기록에서 알 수 있다.

월명은 늘 사천왕사(四天王寺)에 살았는데 피리를 잘 불었다. 일찍이 달밤에 피리를 불면서 문 앞의 큰 길을 지나가니 달이 그를 위해 가는 것을 멈추었다. 이로 말미암아 그 길을 월명리(月明里)라 했다. 월명사도 또한 이로써 이름이 났다.³²⁾

여기서는 ‘월명사’라는 이름의 유래 또한 그의 뛰어난 피리 연주 실력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이 배경설화를 통해 그 당시 음악과 관련한 악기미디어의 보급과 교육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음을 추측할 수 있다. 즉, 월명사가 달을 감동시킬 정도로 피리 연주를 했다는 것은 그가 어느 정도 체계적인 악기 연주교육을 받았음을 보여주며, 이를 통해 그 당시 신라교육에서 악기의 보급과 음악교육이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신라사회가 음성미디어의 보급과 유통을 통해 신라인들의 정서함양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8세기 후반에는 신라의 하층민인 도적들까지 향가를 향유했음을 보여 주는 기록은 다음과 같다.

중 영재(永才)는 천성이 익살스럽고 사물에 얽매이지 않았으며, 향가를 잘했다. 만년에 장차 남악(南岳)에 은거하려 하여 대현령(大峴嶺)에 이르러 도적 60여 명을 만났다. 도적이 그를

31) 『三國遺事』, 卷5, 感通7, 『月明師兜率歌』, 生死路隱 此矣有阿米次盼伊遣 吾隱去內如辭叱都 毛如云遣去內尼叱古 於內秋察早隱風未 此矣彼矣浮良落尸葉如 一等隱枝良出古 去奴隱處毛冬乎丁阿也 彌陀刹良逢乎吾 道修良待是古如.

32) 『三國遺事』, 卷5, 感通7, 『月明師兜率歌』, 明常居四天王寺 善吹笛 嘗月夜吹過門前大路 月馭爲之停輪 因名其路曰月明里 師亦以是著名.

죽이려 하니 영재는 칼날을 대하고서도 겁내는 기색이 없었으며 화평한 태도로 대했다. 도적들은 이상히 여겨 그 이름을 물으니 영재라고 대답했다. 도적들은 그의 이름을 들었으므로 이에 그에게 노래를 짓게 했다. (중략) 도적들은 그 노래에 감동하여 비단 두 단(端)을 그에게 주니 영재는 웃으면서 사절했다. “재물이 지옥에 가는 근본임을 알고 바야흐로 깊은 산중으로 피해 가서 일생을 보내려 하는데 어떻게 감히 이것을 받겠는가?” 이에 그것을 땅에 던져 버렸다. 도적들은 또 그 말에 감동되어 모두 가졌던 칼과 창을 버리고 머리를 깎고 영재의 제자가 되어 함께 지리산에 숨어 다시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³³⁾

이 배경설화는 원성왕(785-798 재위)때 향가에 뛰어난 승려 영재가 대현령에서 도적 60여명이 그에게 노래를 짓게 한 내용의 기록이다. 여기서 도적들은 영재가 지은 노래와 그의 말에 감동하여 도적질을 그만두고 그의 제자가 되었다. 이처럼 도적들까지 향가의 창작자의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을 만큼 그 당시 신라의 향가의 보급과 유통은 계층을 불문하고 신라사회의 구석구석까지 퍼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영재가 도적들을 감화시켜 그의 제자로 삼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 향가미디어는 그 당시 신라의 교화미디어로서의 역할도 충실하게 수행했다. 이처럼 음성미디어로서의 향가는 신라의 전 계층에 의해 생산되어지고 유통되면서 향유된 노래미디어이다. 이러한 향가는 진성왕(887-897 재위)때에 이르러 미디어유통의 측면에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삼국유사』에서 확인된다.

2년(888) 봄 2월에 소량리(少梁里)의 돌이 저절로 걸어갔다. 왕은 평소부터 각간 위홍(魏弘)과 간통해왔는데, 이때에 이르러 늘 대궐에 들어와서 권세를 마음대로 부렸다. 이에 그에게 명을 내려 대구화상(大矩和尚)과 함께 향가를 간추려 모으게 하여 이를 『삼대목(三代目)』이라 했다.³⁴⁾

이는 진성왕 3년(888)에 왕명으로 각간 위홍과 대구화상이 역대의 향가를 모아 『삼대목(三代目)』이라는 책을 편찬했음을 보여준다. 이로써 신라사회에서 창작되어 유통된 향가미디어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삼대목』이 『삼국유사』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면 일연의 시대까지는 전해지지 않았다고 짐작된다. 그러나 향가미디어가 고려시대까지 지속적으로 유통되었음은 『균여전』에 기록된 다음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33) 『三國遺事』, 卷5, 避隱8, 『永才遇賊』, 釋永才性滑稽 不累於物 善鄉歌 暮歲將隱于南岳 至大峴嶺 遇賊六十餘人 將加害 才臨刃無懼色 怡然當之 賊怪而問其名 曰永才 賊素聞其名 乃命□□作歌 (中略) 賊感其意 贈之綾二端 才笑而前謝曰 知財賄之爲地獄根本 將避於窮山 以饑一生 何敢受焉 乃投之地 賊又感其言 皆釋劔投戈 落髮爲徒 同隱智異 不復蹈世.

34) 『三國史記』, 卷11, 新羅本紀11, 『眞聖王』, 二年 春二月 少梁里石自行 王素與角干魏弘通 至是常入內用事 仍命與大矩和尚 修集鄉歌 謂之三代目云.

스님의 불교 이외의 학문은 사뇌-뜻이 사(詞)에 정밀(精密)한 까닭으로 뇌(腦)라 한다-에 더욱 익숙하여 보현보살의 열 가지 소원에 의거해서 노래 열한 수를 지었다. 그 서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대개 ‘사뇌’란 세상 사람들이 희롱하며 즐기는 도구요 원왕(願王)이란 보살이 행실을 닦는 추요(樞要)다.”³⁵⁾

이처럼 균여는 노래로써 세상을 교화하기 위해 사뇌가 형식인 『보현십종원왕가(普賢十種願王歌)』를 지었다. 또한 여기서 ‘사뇌’란 세상 사람들이 희롱하며 즐기는 도구라고 일컬었다는 것은 바로 향가미디어가가 균여가 생존한 시기의 고려인들에 의해 많이 불리어졌음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향가미디어는 신라시대에서 고려시대까지 전 계층에 의해 창작되고 지속적으로 유통되어진 음성미디어임을 확인할 수 있다.

IV. 결론

교육미디어로서의 음성이 교육활동에 작동될 때에는 ‘입’과 ‘귀’라는 감각기관에 주로 의존해서 이루어진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귀라는 청각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일련의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명확한 의도에 기초하여 가르치고 배우는 일인 교육은 곧 현생인류의 출현과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제서야 인류는 말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고 예술과 종교 활동을 하게 되었다. 이들은 모두 비가시적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눈에 보이는 자연적 세계와는 별도로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의 세계가 인류에게 열린 것이다. 수백만 년 동안 무의식 내지는 반의식 상태에 있던 인류가 사라진 대신, 돌연히 말을 하고 추상적인 사고의 힘을 가진 새로운 인류가 지구상에 나타난 것이다.³⁶⁾ 이 무렵부터 인간은 초보적인 수준에서 언어를 사용하는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다. 자연적 상태에 놓인 인간에게 있어 ‘세계’에 대한 이해는 선결과제이자 삶의 존재 근거 그 자체였다. 따라서 세계에 대한 이해와 그러한 이해의 보급과 전승은 그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교육활동이었다. 쓰기가 발명될 때까지 인간은 음향적 공간 안에서 살았다. 방향도 지평선도 없는 무한한 상태에서 원시적 본능에 의지하고 공포에 압도당하며, 이성(理性)이 발달하지 않은 감정의 세계에서 살았다. 말(言語)은 이 늪에서 헤쳐 나가는 길을 제시해 주는 지도(地圖)이다.³⁷⁾ 이처럼 문자미디어가 출현하기 이전 시기에 음성미디어는 그 사회의 정향(定向)을

35) 『均如傳』, 第7, 『歌行化世分者』, 師之外學 閑於詞腦 (意精於詞故云腦也) 依普賢十種願王 著歌 一十一章 基序云 夫詞腦者 世人戲樂之具 願行者 并修行之樞.

36) 정규영, 『동서양 교육의 역사』, 학지사, 2011, 34쪽.

37) 마살 맥루한 · 켈멩 피오르, 김진홍 역, 『미디어는 맛사지다』, 열화당, 1988, 48쪽.

보여준 중요한 미디어였다. 따라서 배움의 공간에서 음성미디어가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음성미디어의 기본적인 특성은 구술성(口述性, orality)이다. 반면에 문자미디어는 문자성(文字性, literacy)을 기본적인 특성으로 삼는다.³⁸⁾ 이는 음성미디어와 문자미디어의 의사소통이나 사고체계가 전혀 다른 특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음성미디어와 문자미디어가 각기 고유의 교육미디어로 기능할 때 그 자체로 독특한 미디어적 경향성을 표출한다. 이런 관점에서 신라교육에서 향가를 주목하는 이유는 향가가 신라인의 정서를 시와 송이라는 운율의 형식으로 표현된 노래미디어로서 그들의 인성형성에 끼친 영향이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신라에서 향가는 교육미디어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한 대표적인 음성미디어의 구실을 하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향가는 모든 계층에서 창작되었으며, 창작 계층의 신분계층에 따라서 창작의 형식이 달랐음을 알 수 있다. 향가미디어는 사뇌가와 같이 정신적 지도자들이 지은 것도 있고, 일반 화랑들이나 낭도들이 지은 것들도 있지만 그것이 천지와 귀신을 감동시킬 정도로 그 시대의 인심(人心)과 정서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신라교육사에서 중요한 사실이며, 이는 단지 가사의 우수성 뿐 아니라 노래라는 음성미디어의 특성에 기인하였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상층계층에 의해 탄생된 향가미디어는 화랑과 불교라는 당대의 사상적 지주를 신라정신으로 바꿔 노래라는 형식에 담으면서 주로 집단의 결속과 개인의 심성을 표현하였으며, 또한 삼국통일을 전후한 사회의 긴장과 분열을 조정하여 감각들의 비율을 균형적으로 조화시킨 통합적 미디어로 기능하였다. 왜냐하면 노래미디어인 향가는 다른 음성미디어와 달리 균형 잡힌 정서를 바탕으로 한 심미적이면서 예술적인 지향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가미디어의 생산자인 창작자는 바로 예술가이다. 그러므로 그 당시 향가미디어의 창작예술가는 삼국통일로 발생한 새로운 기술을 노래미디어라는 형태로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이런 관점에서 맥루언이 다음에서 언급한 예술가의 역할은 신라의 향가미디어의 탄생을 둘러싼 미디어생산자의 의도를 읽어내는데 매우 유익한 시각을 제공한다. 즉, 예술가란 어떤 분야에서든 그 시대에 자신의 행동과 새로운 기술이 갖는 함의를 파악해 내는 사람으로서, 그는 통합적인 정신의 소유자이다. 따라서 예술가는 새로운 기술이 타격을 가해 의식 작용을 마비시키기 전에 미리 감각들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또 마비 현상과 무의식상의 모색 및 반작용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³⁹⁾ 그러므로 예술가는 감각들의 균형을 조정함으로써 외부 세계에 대한 지각과 경험 방식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지각의 내용과 반응 정도에 따라 감정의 질적 상태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이는 지각의 내용과 형태 그 자체가 정서의 내용과 형태가 된다는 점에

38) 월터 J. 옹, 이기우·임명진 역,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문예출판사, 1995, 14쪽.

39) 마셜 맥루언, 김성기·이한우 역, 앞의 책, 115쪽.

서 지각은 감정의 결정 요소가 되는⁴⁰⁾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 시기 향가미디어의 향유계층에 대한 탐구는 향가의 유통 과정과 관련이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신라에서 향가미디어는 모든 계층에서 창작되어져 유통되면서 아울러 모든 계층에서 향유되었는데, 심지어 도적들까지 향가 창작자의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을 만큼 그 당시 신라의 향가의 보급과 유통은 계층을 불문하고 신라사회의 구석구석까지 퍼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영재가 도적들을 감화시켜 그의 제자로 삼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 향가미디어는 그 당시 신라의 교화미디어로서의 역할도 충실하게 수행했다. 그리하여 향가는 신라시대에서 고려시대까지 강한 전승력과 교육적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전 계층에 의해 창작되고 지속적으로 유통되어진 음성미디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바는 향가와 아울러 신라인들의 인성형성에 영향을 미친 음성미디어로서 범성이 유통되었다는 점이다. 월명사가 범성에는 익숙지 못하다는 대목에서 그 당시 신라사회에서 범성에 익숙한 개인이나 집단이 존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그 구체적인 연원은 잘 알 수 없지만, 이 시기 신라사회에서 범성인 범패가 음성미디어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범패가 그 노래를 듣는 신불, 천지 그리고 귀신을 감동시킬 정도였다면, 그 당시 신라인들의 정서와 심미적 인성 형성에 끼친 영향은 엄청났으리라 짐작된다. 이처럼 범패는 향가와 함께 신라인의 정서함양을 위한 음성미디어이자 교화미디어의 기능을 하면서 신라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유통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진감선사에게 범패를 배우러 온 사람들이 승당(僧堂)을 가득 메웠다는 사실을 통해 진감선사의 범패미디어 구사능력의 뛰어남과 아울러 그 당시 신라인들의 음성미디어 활용에 대한 열의, 그리고 교화미디어로 범패를 활용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는 그 당시 신라인들이 새로운 교육미디어에 대한 관심이 지극했다는 점과 함께 그들의 문화예술 수준이 고대사회의 편협성을 극복하며 주체적인 문화인의 삶을 지향했음을 알 수 있는 한 단면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주목할 바는 그 당시 신라교육에서 악기의 보급과 음악교육이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월명사가 달을 감동시킬 정도로 피리 연주를 했다는 것은 그가 어느 정도 체계적인 악기 연주교육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사례들은 신라사회가 음성미디어의 보급과 유통을 통해 신라인들의 정서함양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처럼 향가는 그 자체의 고유한 특성을 지닌 음성미디어로서 그 당시 신라인들이 그들의 실존적 고민을 극복하고 이상을 염원하고자 하는 지각 방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또한 그들의 예술적 감수성과 인성 형성에 기여한 교육미디어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40) 한명희, 『교육의 미학적 탐구』, 집문당, 2002, 105쪽.

참 고 문 헌

- 『三國史記』 『三國遺事』 『均如傳』
- 김균, 정연교(2006). 『맥루언을 읽는다』. 궁리.
- 김부식, 이재호 역(1997). 『삼국사기 1·2·3』. 솔.
- 김승찬(1999). 『신라향가론』. 부산대학교 출판부.
- 나경수(2004). 『향가의 해부』. 민속원.
- 박노준(1991). 『향가』. 열화당.
- 서철원(2010). 『향가의 역사와 문화사』. 지식과 교양.
- 안경식(2004). 『구비설화에 나타난 한국전통교육』. 문음사.
- 일연, 이재호 역(2006). 『삼국유사 1·2』. 솔.
- 정규영(2011). 『동서양 교육의 역사』. 학지사.
- 조동일(1992). 『한국문학통사 1(제2판)』. 지식산업사.
- _____(2005). 『한국문학통사 1(제4판)』. 지식산업사.
- 최치원, 최영성 역주(1998). 『崔致遠全集 1: 四山碑銘』. 아세아문화사.
- 한명희(2002). 『교육의 미학적 탐구』. 집문당.
- McLuhan, M., *Understanding Media: The Extension of Man*, Corinne McLuhan (1996); 김성기·이한우 역(2011). 『미디어의 이해』. 민음사.
- 마살 맥루한·괘뎡 피오르, 김진홍 역(1988). 『미디어는 맛사지다』, 열화당.
- Walter J. Ong, 이기우·임명진 역(1995).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문예출판사.
- 안경식(2004). 『화랑도 교육사상과 철학』, 『신라학연구』 제8권. 신라학연구소.
- <http://www.koreamusic.org/InfoText/TextDetailView.aspx?MenuCode=102011100>, 한국전통 소리문화 홈페이지.

- 원고접수: 2013년 7월 10일 / 수정완료: 2013년 8월 9일 / 게재승인: 2013년 8월 19일
- 박재영: 진주교육대학교 시간강사. 연구관심 분야는 한국고대교육, 미디어교육, 전통아동교육, 다문화교육, 불교교육사상 등. education@pusan.ac.kr

<ABSTRACT>

**A Study on the Silla Education from the HyangGa
as the Voice Media**

Park, Jae-Young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tudy Silla education through HyangGa which is the representative voice media in the period of Silla. Henc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birth of HyangGa, its distribution process, and its concrete influence on the formation of human nature in the Silla era.

HyangGa as voice media which expressed emotion of people in Silla with the rhythmical forms such as 'poem' and 'eulogy(頌)' was composed, distributed, and enjoyed by people of every class of Silla. Creative forms were also different according to the difference in social status of creators. Thus, HyangGa as characteristic voice media had affirmatively affected the ways of perceiving that people of Silla had overcome their existential agony and had desired the ideal. It had played roles as education media contributing to their artistic sensitivity and humanity formation as well.

Key Words : HyangGa, voice media, education media, human nature, Silla education